

2

그리스도인의 꿈

빌 1:20~26, 창 37:5~11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압니다.
2.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실제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가 오는도다 (창 37:18~19)



을 이해하기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 가운데 어렸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셉, 사무엘, 다윗, 예레미야, 다니엘, 리빙스톤, 무디, 스펀전, 모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꿈(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꿈(비전)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꿈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고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외모, 성격, 은사, 능력 그리고 환경이 다른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꿈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 꿈은 올바른 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계획을 세웠을 때가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하고 노력해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나를 일찍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1:20)

According to my earnest expectation and hope that in nothing I shall be ashamed, but with all boldness, as always, so now also Christ will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Phil 1:20)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그리스도인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세상사람의 꿈과 그리스도인의 꿈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써 봅시다.

구분	그리스도인의 꿈	세상사람의 꿈
공통점		
차이점		

2

성경 인물 중에서 한 명을 정하고, 그 사람의 꿈과 꿈의 실현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3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것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봅시다.

4

주 안에서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칭찬을 적어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23:17

의

잠 23:18

화

잠 24:14

↑

잠 24:16

↓

잠 29:18

↓

행 2:17

↓

빌 3:14



땀으로 꿈을 적시는 사람

땀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땀을 흘릴 때는 비록 힘들지만 흘린 이후에는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것이 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에도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흘리는 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으면 땀을 흘리고서도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 첫째이고, 내가 흘린 땀의 양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면 욕을 먹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칭찬까지는 듣지 못한다는 것이 둘째이고, 내가 흘린 땀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때라야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내가 흘린 땀만큼의 보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셋째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몸 안에서 한 드림통의 물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몸 안에서 한 드림통의 물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그 물을 땀으로 뿜아내고, 실패한 사람은 그 물을 눈물로 뿜아내서 죽기 전까지 기여이 자신의 드림통을 채운다고 합니다. 조금 잔인한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땀을 흘려야 할 젊었을 때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늙은 다음에 젊어서 흘렸어야 할 땀만큼의 눈물을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연장선상에 오늘이 있고, 오늘의 연장선상에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행복한 것은 이전에 그가 그만큼 노력했고, 연습했고, 참아냈고, 인내했고,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누군가 불행한 것은 과거에 그에게 잘못된 시간이 있었고, 잘못된 선택이 있었고, 현실에 안주했고, 변화를 거부했고, 게을렀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내가 행동한 결과물이 오늘의 내 모습이 되고, 오늘 내가 행동한 결과물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게을렀는데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어제 내가 나쁜 선택을 했는데 오늘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면서 깊이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고통 없는 비전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땀으로 꿈을 적시는 사람'의 것입니다. 땀으로 꿈을 적실 줄 아는 사람만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과 교회를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려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주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4:10~11)

질문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보여줍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 33:22~23)

과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모세에게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출 33: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시고 적당한 때에 손을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발을 보았다는 말씀도 있는데(출 24:9~11), 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본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는 말씀도 있는데(민 12:8), 이 말씀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모세 이외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은 성경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보았다고 했고(사 6:1), 다니엘도 보았다고 했습니다(단 7:9). 하지만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신약에 하나님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말씀과 모순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후 6:16)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形象)만을 보았던 것입니다.